

##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으로 보는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코르넬리스 프롱크

이수환

코르넬리스 프롱크의 책을 처음 만난 것은 2011년 여름으로, 평소 개혁신학에 관심이 많던 청년의 선물이였다. <No other foundation than Jesus Christ>라는 책으로, 저자에 대한 설명 중 그나마 익숙한 것은 그가 조엘 비키가 세운 청교도 개혁신학원(Puritan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것뿐이었다. 그는 FRCNA(Free Reformed Church of North America)라는 생소한 교단에서 사역하였는데, 그 책은 그가 교단의 소식지에 정기적으로 실었던 글들을 모은 것으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었다. 이후로 이 책은 가끔 찾아보는 가장 소중한 책 중 하나가 되었고, 그의 다른 저서들 <Expository Sermons on the Canons of Dort>(『도르트 신조 강해』, 황준호 역, 그책의 사람들, 2013)와 <Faith of our Fathers, Studies in the Doctrine of Grace>(『은혜교리』, 김동환 역, 그책의 사람들, 2012), <11 Studies on the Ten Commandments: Expository Thoughts with Discussion and Questions>(『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으로 보는 십계명』, 임정민 역, 그책의 사람들, 2013) 등도 찾아 읽게 되었다. 특별히 십계명의 경우는 국내에 번역·출간되기 전에 직접 번역해서 수련회 동안 청년들과 함께 읽기도 했다.

이렇게 그의 책들을 소개하는 것은 그 유익이 상당하기 때문인데, 이는 그의 저서 전체에 흐르는 매우 중요한 특징 때문이다. 이력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그는 철저한 개혁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로, 청교도의 신학과 경건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아무리 내용이 풍부하고 명료한 신학자의 글이라도 동일한 주제의 글을 목회 현장에서 다시 가르치거나 적용하기에는 어려울 때가 있다. 반대로 목회자의 글은 적용하고 전달하기는 편하지만,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해 모호해지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저자의 글에는 신학자의 학문적인 엄밀함과 목회자의 실천성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 신학적 이해와 목회적 적용을 동시에 만족시켜 준다. 말 그대로 목회와 신학이 분리되지 않은 신학자이자 목회자이다.

이러한 특징은 아마도 그가 쓴 글들의 바탕이 신앙고백서들이기 때문인 것 같다. 그는 신앙고백서들을 즐겨 인용하고, 그 자체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특히 그가 쓴 『도르트 신조 강해』는 도르트 신조를 하나하나 풀어가며 그 신학적 적용점들을 단지 신학적, 철학적 서술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알미니우스에 대한 반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코르넬리스 프롱크 저 | 임정민 역 | 그책의사람들

코르넬리스 프롱크 저 | 임정민 역 | 그책의사람들

코르넬리스 프롱크 저 | 임정민 역 | 그책의사람들

예정과 섭리가 신자의 삶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 그것이 신자의 삶에 끼치는 은혜의 경이로움이 무엇인지를 풀어낸다. 교리에 대한 에세이인 〈No Other Foundation than Jesus Christ〉 역시 신앙고백서들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많이 나타난다.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에게 지금 당장이라도 줄 수 있는 교훈과 위로가 넘쳐난다.

그가 쓴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도 같은 흐름 안에 있다. 세 책 모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으로 보는”이라는 소재목이 붙어 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개혁주의 신앙고백서 중 가장 먼저 작성된 문서로(1563년) 종교개혁이 막 시작되어 그 첫 열매가 맺힐 즈음 작성되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두드러진 특징 두 가지는, 외적으로는 로마 가톨릭과의 경계선을 그었고, 내적으로는 성경적 교훈을 바르게 확립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성경 해석에 따른 신학적 오류를 지적하고 바른 성경적 적용점들을 자세히 설명하게 되었으며, 신학적인 명료성과 더불어 속히 성도들을 바른 교훈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목회적이고 실제적인 성격을 함께 지니게 되었다. 코르넬리스 프롱크의 저서들은 하이델베르

크 교리문답의 이러한 성격을 잘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 그 자체에 가장 충실한 해설서이다. 특히 이 세 권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드러내어 오직 하나님만의 전적인 은혜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이를 통해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드러내는 개혁주의 신학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그래서 자칫 ‘사람의 일’로 이해되기 쉬운 기도와 율법의 준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견고히 묶어준다.

뜻밖에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과 그의 나라, 뜻에 어울리지 않는 자인가가 드러난다. 이것이 ‘뜻밖인’ 이유는 주기도문에 대한 책들 대부분이 인간의 ‘전적 타락’을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기도에 응답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자격을 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저자는 ‘우리가 얼마나 기도에 어울리지 않는 자인가.’로 시작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됨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인가.’를 드러내고 이를 통해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도록 돕는다. 아마도 이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이 아닌가 싶다. 기도에 대한 신학적 설명이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실천이다. 기도의 자리를 소망하게 만든다! 자격 없

는 자를 이끌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드러나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도신경을 통해서서는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음이 증거된다. 저자는 기독교 신앙 전반을 훑는다. 겉만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짧은 단락 안에 핵심 내용들을 설명해낸다. 신앙고백서들의 내용을 설명하고, 초대교회부터 현대 신학까지의 내용들을 살피며, 잘못된 주장들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한다. 여기에서 신학자로서의 미덕이 잘 나타난다. 저자의 신학적 지식은 방대하다. 특별히 이전에 읽은 그의 책들에서는 초대교회부터 중세와 종교개혁 시대, 그리고 현대 신학에까지 폭 넓고 깊이 있는 이해가 드러나는데, 특별히 현대 신학이 가진 여러 오류들에 대해 단순한 논리적 반론은 물론 충실한 성경적 반론들을 제기한다. 이러한 신학적 해설을 통해 드러나는 결론은 ‘신앙고백’이다. 내가 지금 누구를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고백하게 한다. 신학적 논증들과 역사적 관찰들이 이어지고, 그 끝에는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한다.

십계명을 통해서서는 율법이 단지 죄를 지적하는 것뿐 아니라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체험하게 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이 십계명은 가장 종합적이고 실천적이다.

이 세 권의 공통적인 장점은 ‘서론’이다. 주기도문은 ‘기도가 무엇인가?’,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십계명은 ‘율법은 무엇이며, 그것이 성도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는가?’를 서론에서 다룬다. 각 서론의 깊이와 가치는 대단하다. 서론만 읽어도

큰 것을 얻게 된다. 개인적으로 주기도문의 서론이 가장 좋고, 그 다음이 십계명의 서론이다. 특별히 십계명의 서론은 한쪽으로 기울기 쉬운 율법에 대하여 바른 이해를 제공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왜 우리의 삶에서 그토록 가치 있는 것인가를 설명해준다. 이후 각 항목에 대한 설명과 적용들은 너무나도 실제적이다. 심지어 8계명을 다룰 때는 저자 본인의 정치적 성향마저도 가감 없이 드러난다. 이것이 저자의 십계명 이해의 단점이자 장점인데, 그만큼 저자가 이 십계명을 삶에서 분리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십계명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되기에 삶의 방식과 태도 또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십계명은 성령님의 도우심에 대한 간절한 간구로 연결된다. 율법이 이러하니 더욱 애쓰자라는 결론과 함께, 그러한 애씀이 얼마나 무능력한지가 드러나고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간구하게 된다. 또 삶에 나타난 거룩한 삶의 열매들에 대하여 감격하고 감사하게 된다. 율법의 정죄로 인한 죄책감에서 시작하여, 성령의 도우심에 대한 간절한 간구, 도와주시고 힘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끝을 맺는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 첫째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사도신경이고, 둘째는 ‘무엇을 바랄 것인가?’에 대한 주기도문이며, 셋째는 ‘무엇을 행할 것인가?’에 대한 십계명이다.”라고 했다. 이 세 권의 책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다. 교회에 출석하며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크리스천 중, 위 세 가지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많다. 임의대로 기도하는 사람도 많고, 자기 나름의 윤리적 기준으

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 늘 '믿음'을 말하지만 그 믿음은 단순한 자기 확신이나 신념일 때가 많다. '기도'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 기도가 아니라 단순한 한풀이에 불과하거나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무속적인 기도일 때도 있다.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지만 방향 없이 임의로 살아가는 기독교 신자들 역시 많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이 한국 교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때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귀한 유산을 다시금 돌아보아야 한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비롯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 그 외의 신앙고백서들의 내용을 다시금 배우고 익히고 가르쳐야 한다. 단순히 예전의 향수를 느껴보자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오늘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하고 가르치기 원하시는 가장 성경적인 신앙 교과서들이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 세 권의 책을 한꺼번에 읽으며 개인적으로 몇 가지 큰 유익이 있었다. 하나는

“  
이 세 권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드러내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이를 통해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드러내는 개혁주의 신학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

신학적 지식을 아는 것이다. 모호하고 희미한 부분들이 이 책을 통해 다시 명료해졌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 자체를 돌아보게 된다. 기도 생활을 돌아보게 되었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었다. 세 번째는 이를 가르치고 전해야 한다는 목회적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 새해에는 이 세 권으로 청년부 리더 훈련을 하려고 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 중 하나는 세 권 모두 각 장마다 저자가 직접 '공부와 나눔을 위한 질문'들을 기록해 놨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더욱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보게 되기를 바란다. 더 많은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필자와 같은 유익을 누리게 되길 바란다. 저자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책을 번역하여 출판한 출판사에게도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혼란하고 어지러운 때에 귀한 믿음의 책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수환 고려대학교에서 학사를,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석사(M.Div)를 졸업하였다. 현재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화평교회에서 청년부와 교구를 섬기고 있다.